

# 마데테스



표어 : 믿음이 기쁨되고 용서가 감사되는 교회

## 은석교회는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는 심판자로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종교적  
업적을 나타내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생명사건을 존귀하게  
바라봄으로 세상 조건의  
차이는 사소한 것으로  
여깁니다.

## 산을 오르는 자의 노래

신윤식

함지산 휘어감은 안개 때문인가  
소나무 참나무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무들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하늘이 보이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어두워졌다가 밝았다가 반복하는 중에도

부드럽기도 하고 때로는 거칠기도 한  
작은 오솔길 산 속의 나무 이파리는  
밤새 내린 빗물을 품었다가  
흘러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발길에 단단해진  
등산길을 축축하게 적신다.

시원한 공기는  
가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주고  
상쾌한 기운 맛보며 산을 오르니  
덧없는 세월을 즐기는 길  
이 길을 걷는 걸음걸음엔  
굴곡의 삶도 동행하겠지

이마엔 땀방울 흘러내리고  
조잘거리는 참새 소리 들으며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서성이는  
갈망의 노래 한 가락 꺼내  
그 나라 껴안고 흐르자고  
가을이 보내온 바람에 실려 보낸다.

대한예수교장로회

##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9-832-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mailto: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1.8.28

발행호수 제19권 34호

**본** 문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주된 해석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우주에서 일어날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면 간단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본문은 그처럼 기존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몇 가지 결함들이 있

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본문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 우주에 있을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29절의 내용대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믿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과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도 알지 못한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종말은 세상의 끝과 같은 것이기에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묻는 것이지 하늘로 가신 부활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 끝에 대해서 알고 그 징조를 묻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 앞에서까지의 내용을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는 때, 즉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를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제가 설교 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을 이 세상의 멸망으로 연결하여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멸망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과 그 징조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주일오전설교  
마 24:29-31

## 영광의 나라

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들에서 세상의 결국을 내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에 대해 말씀 하셨다면, 본문의 내용은 순서상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예루살렘 멸망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로 주제가 바뀐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의 내용을 예루살렘 멸망 때 있을 현상으로 이해하기가 매우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의 말씀은 누가 봐도 세상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우주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별이 떨어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는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현상이 아니라 재림의 내용에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보다는 재림의 이야기로 더 다가와지는 것은 본문을 문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문자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재림 때 있을 현상으로 해와 달이 실제로 어두워지고 빛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별들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실제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주된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시느냐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든 타지 않고 오시든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로 공론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항상 본질적 문제는 외면하고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세계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문을 재림 때의 일로만 받아들인다면 29절의 말씀은 지금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다만 막연하게 재림 때 온 우주에서 벌어질 일로만 생각하게 될 뿐입니다. 더군다나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내용은 더욱 더 우리 현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 하실 때의 일로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문은 우리 머리에만 기억된 채 현실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전락될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현실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별망을 보면서 신자로서의 삶의 길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9절의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날 환난’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때에 있을 환난을 말합니다.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을 2:10절을 보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에 대한 묘사인데 이것을 보면 본문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 13:10절에서도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한 것입니다. 역시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에 대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 묘사입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에서는 한 국가가 황폐하게 되고 무너지는 것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29절은 재림 때 있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표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약적 표현대로 한 국가의 멸망,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표현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가의 멸망을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묘사를 할까요? 그것은 해와 달과 별을 하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권능은 권세자를 뜻합니다. 세상에서 해나 달이나 별로 묘사되는 인물들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 멸망의 의미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어야 할 존재로 세움 받았습니 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야 말로 그들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 없

습니 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영광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아님을 그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9절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30절의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인자의 징조’라는 말이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세상 끝에 있을 사건으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인자의 징조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을 우리의 전도나 선교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복음 전파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든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성령의 오심과 연결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의 오심이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31절의 내용대로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인자의 징조는 성령의 오심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곧 인자의 징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것도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 회개의 애통이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라는 내용이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실제 하늘의 천사를 뜻한다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냄 받은 성령 받은 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낸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는 말인데, 성령 받은 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말로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를 모으기 위해 보냄 받은 하나님의 종, 천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 7:13-14절을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묘사된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인자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너지고 멸망하지만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임을 환상으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셨다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과 권세를 초월하시고 그 위에 존재하심을 뜻합니다. 그러한 인자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 세상에 오시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를 가진 나라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권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권능, 영광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은 그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붙들고 있었는가를 알게 하는 기회가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 권세와 영광의 헛됨을 증거하고 영원한 권세의 나라를 보여주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권세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만 드러나 있을 뿐 부활 생명의 영광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권세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신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나라로 모이는 것이고 예수님의 나라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안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추구할 수 없습니

다. 그 모든 것은 무너지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의 멸망 내다 보고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권세와 영광의 나라에 백성으로 살아감을 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들로 모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과 권세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께 시작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 무너질 것이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권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에 속한 백성 됨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자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광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바울이 서신을 보낸 로마 교회에는 갈 등이 있었으며 그 원인은 신앙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에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거룩한 신자 됨을 이루는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유대인 신자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신자의 거룩함을 위해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신자다운 삶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갈등 속에서 서로의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틀렸다면 비난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다르기 때문에 그들 중 한쪽은 틀렸고 한 쪽은 맞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는 판단은 하나님

주일오후학교

롬 14:17-18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5강 7.31일 설교)

나라로서의 교회됨에서 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맞다' 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의 말에 대해 맞다 틀렸다는 판단을 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참된 진리인지는 누구도 판단하거나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복음에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무지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뭔가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것이 있을 뿐인데, 그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라는 분별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분별이지 판단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말도 지식도 아닙니다. 진리에 부합된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주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고, 신앙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세계를 알게 하고 그 길을 가도록 도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옳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안고 있는 본질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의 세계에 속한 자로 진리를 말한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으로 형제를 대하지 않게 됩니다.

설령 누군가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한다고 해도 나 역시 진리 밖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비판과 판단으로 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말썽을 가지고 자신을 보고 말썽으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늘 어리석고 무지하고 진리에서 떨어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서 판단이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판단은 곧 자신을 보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바울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양쪽 다 맞다' 라는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는

'다 맞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 않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즉 비록 신앙에 대한 생각과 말은 다를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 말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날을 지키는 것으로 세워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누가 옳은가를 따지며 다투고 서로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서 떨어져 있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아예 구원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율법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쳤던 거짓 사도들은 구원은 믿음만으로는 안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반면에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 안에서의 삶의 문제를 두고 자유나 아니면 신자로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14장을 보면 사도는 한 복음 안에서 신자가 서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보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지식으로 나와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판과 판단을 통해서 같은 지식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결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함께 누리고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구별되거나 서로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다르나 주를 향한 마음이 같다면,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의가 뭍을 고백한다면 그것으로 형제의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5,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

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을 거룩한 날로 여기며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특별한 날은 없고 모든 날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지식을 근거로 하면 이 쪽이 틀렸고 저쪽이 틀렸다는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날을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는 것에 있게 됩니다.

사도는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도 모든 나라를 갖게 여기는 사람도 모두가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를 위하는 그 마음에서는 서로 다르지 않고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지식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마음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지식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라면, 우리는 예수님은 팽개치고 '누구든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모여라'는 식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잘라내면서 복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지키는 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진리에 부합된 지식이고, 다른 한쪽은 진리에서 벗어난 지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이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 마음도 예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말과 같은 생각 같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현대 교회는 의견이 대립되면 쉽게 다툼과 분란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모이는 결과입니다.

교회는 의와 평강과 화락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의와 평강과 화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되는 것들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우리를 의와 평강과 화락에 있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 나를 의롭다 옳다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와 옳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의롭고 옳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다툼이 사라지고 평강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평강의 관계에서 서로가 주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수요일설교

말 3:13-18

무슨 말로 대적  
하였나이까

(7강 7.27일 설교)

사람은 자기 입장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입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반발하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시는 일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 대해 '어떻게'라는 말로 일관합니다.

본문에서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면서도 '무슨 말로 대적하였나이까'라며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주의 이름을 멸시하지도 더럽게 하지도 않았음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정당함을 주장함으로써 현재 자신들의 어려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로 돌리려고 합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섬기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함으로써 모든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떤 고통에서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었을 뿐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반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멸망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면서 바라는 것은 편한 인생입니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멸망이 당연한 죄인에게 어

울리지 않는 생각입니다. 죄인에게 주어질 것은 형벌밖에 없습니다. 형벌이 저와 여러분께 마땅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긍휼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스라엘처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고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에 대해 불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까요?

14-1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한 모든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슬프게 행한 것이라는 말은 금식하고 회개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지키며 금식하고 회개까지 했는데도 유익이 없다는 것은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세상 현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악인이 더 번성합니다. 그런 현실을 보며 교만한 자가 더 복을 받고 악인이 더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입니다.

교만한 자가 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의 가치를 교만한 자가 누리는 세상의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언약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한 자가 누리는 번성을 더 큰 복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해 반발합니다. 이처럼 긍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세상의 번성을 더 큰 복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불만이 없습니까? 우리는 모이면 십자가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은혜는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죄에 갇힌 우리를 건지신 긍휼과 자비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은혜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을 세상의 번성과 비교하면서 믿음의 유익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의 번성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번성한다고 해도 구원의 능력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운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이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은혜에 속한 자로 부름 받은 것을 세상의 번성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행함이 있다고 해도 그 행함이 자신에게 어떤 유익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유익이 없다고 여겨지면 신앙생활에 시큰둥해지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헛되고 유익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 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 역시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이 불만을 낳게 되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로 여깁니다. 따라서 이방인은 복을 받지 말아야 하고 번성하지도 말고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기들에 대해서는 14절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명령을 지키며 금식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다는 불만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번성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의 번성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습니다. 다만 의인으로 여김 받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진정한 의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반발하고 불만을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의인으로 여긴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 역시 의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었음을 알았다면 이방인의 번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자를 구원하시는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복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상에서의 번성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 불만은 없습니다.

##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80장

교 독 : 73(사65편)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452장

성 경 : 마 24:29-31

말 씬 : 영광의 나라(151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10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4장

축 도 : 설 교 자

## ■ 오후예배 ■

2시 2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182장

기 도 : 명기룡 집사

찬 송 : 400장

성 경 : 고전 12:12-20

말 씬 : 교회의 일치(교회 8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220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3강)

## ■ 교회소식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도목희 권사

## 신자로 사는 인생 ⑤

제자들이 '나를 따라 오라' 는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인생의 새로운 전환의 길을 간 것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 역시 다르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자 또한 인생의 새로운 전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신자로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의 목표와 의미 또한 새로워졌음을 뜻한다.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인생의 목표와 의미가 세상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게 된 새로운 인생의 목표와 의미의 기준은 세상이 될 수 없다.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인생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가 현재 이루어 놓은 성과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며, 보이는 성과물이 없어서 낙심하고 인생에 회의를 느끼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주와 함께 죽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제자들이 비록 인생의 새로운 전환의 길로 들어서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원하는 인생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는 문제로 다툼까지 벌인 것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류하기까지 한 것이다.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들의 결단과 힘으로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려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새로운 인생이다. 세상에서 돈을 목표로 한 인생을 살다가 천국을 목표로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자의 새로운 인생이 아닌 것이다. 물론 신자는 돈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다. 이것도 새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천국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존의 인생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생 역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고 말씀한다. 이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가 아니라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의 인생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님을 의미한다. 즉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로 가도록 일하시는 주체가 따로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인생의 전환인 것이다.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자 발버둥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에 의해서 인도받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인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인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신자는 자기 인생에 대해 불만이나 낙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의 주체를 왜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가? 신자로서의 인생에 어떤 목표와 할 일을 정해 주시고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라고 하셔도 될 일이 아닌가?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능히 알 수 있다.